

01. 자료를 찾는 방법

‘질문 수업’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어떤 화려한 자료보다 교사와 학생의 질문이 최고의 자료가 되는 수업,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집밥 같은 수업이 아닐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국어과 질문수업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다가 보시겠습니다.

이 단원은 이야기나 시를 읽고 작품에 대한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람마다 생각이나 느낌이 다르므로 글에 대한 경험과 반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에 대한 반응을 나누면서 공감도 하고 생각의 차이를 인식하도록 하며 토론의 과정에서 말의 차례를 지키며 대화를 나누는 태도도 함께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학년 학기 단원	성취기준	차시별 학습내용(재구성)
4학년 1학기 5단원 서로 다른 느낌	듣기.말하기(4) 말 차례를 지키면서 바른 태도로 대화를 나눈다. 문학(6)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느낀 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1~2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다른 까닭을 안다. 3~4 독서 토론의 방법을 안다. 5~6 이야기를 읽고 말의 차례를 지키며 독서토론을 할 수 있다. 7~8 시를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눌 수 있다. 9~10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정하여 읽고, 독서 토론을 할 수 있다.

먼저 단원의 도입에서 교사는 <서로 다른 느낌>이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첫 차시 수업을 시작합니다. “왜 느낌이 서로 다를까요?”, “서로 다른 느낌을 단원의 제목으로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글을 읽고 나서 친구와 생각이나 느낌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 학생들은 교사의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전체 차시를 개관하게 됩니다.

1~2차시에서 <우리는 한편이야> 라는 부모님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를 모두들 친구들끼리 소리 내어 한 문장씩 돌아가며 읽고 배역 읽기로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개별로 이야기 속 인물들에게 궁금한 질문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질문 만들기에 몰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와 비슷하거나 자신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랑 아빠랑 비슷하네’, ‘나도 부모님 생신 잊어버린 적이 있는데’ 우리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질문을 만들고 자유 짝을 만나 그 질문을 적극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다. 만든 질문을 가지고 엄마, 아빠, 진경이, 진호를 초대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상상의 나래를 펼쳐 답하면서 이야기는 확장되고 인물의 마음을 역지사지하며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담은 문학 작품을 읽고 질문을 만들기 활동은 다른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더 활발해져갑니다.

- 엄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가족들이 몰라줄 때 기분은 어떠했나요?
: 나는 가족들의 생일을 잘 챙기는데 가족들 모두 제 생일을 기억하지 못해 서운합니다.
- 진경이에 질문하겠습니다. 밤 늦게 엄마의 생신을 알고 무엇을 하기로 했나요?
: 엄마께 미안해서 지금이라도 꽃을 그려서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 아빠는 가짜 반지를 그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나요?
: 내가 돈이 없어서 반지를 사줄 수 없는 것이 속상하고 다음에 돈을 모아서 아내에게 선물을 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정말 반지를 사 줄거냐는 엄마의 대답에 아빠는 어떤 대답을 하였나요?
못 사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을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 아빠는 왜 빈말이라도 생일 선물로 반지 사 준다는 말을 안 했나요?
아내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등

인물에게 글의 내용과 기분을 묻고 답하는 인물 초대석을 마치고 인물의 마음을 이해하고 난 다음 이야기 속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 지민 : 먼저 일주일 이상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엄마, 아빠의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경이와 진호는 두 분이 대화를 통하여 빨리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 선규 :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하지 않는다는 아빠의 행동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빈말을 하지 않는 아빠를 믿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주호 : 엄마와 아빠가 일주일 넘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지민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우리 집도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말 안하거든요. 저랑 동생은 눈치만 보죠. 어른들은 싸우면 왜 말을 안 할까요?” 이처럼 아이들은 이야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기 저기 “우리 집도”, “우리 엄마도 빠치면 서로 말 안하는데” 비슷하다고 여기 저기 웅성거립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 우리 집 이야기가 됩니다.

정리 활동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학생들 의견을 물으니 화해하는 해피엔딩으로 뒷이야기를 만들어 1분 역할극을 만들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야기의 뒷부분을 상상하여 꾸며보기를 위해 질문을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진경이와 진호가 엄마와 아빠를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엄마가 아빠에게 서운한 것을 무엇일까요?”, “엄마와 아빠가 다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야 할까요?”등의 질문을 통해 부모님의 갈등 상황에 자신들이 도움이 되는 활동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한 다음 역할극 내용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아빠가 엄마 생신 기념으로 삼겹살 먹으러 간다. 모두 어때?”가족 외식으로 삼겹살을 쪄겠다는 아빠의 제안을 시작으로 역할극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모둠에서는 아이 둘이 엄마 아빠 화해 작전을 짜서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공원 산책을 나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다이어반지 경품이 나와서 엄마 선물을 주는 장면, 커플 반지를 사서 퇴근하는 아빠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역할극으로 표현되어 훈훈한 가족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경험과 책, 영화, 드라마에서 본 간접 경험까지 총동원되어 기발하고 창의적인 이야기 만드는데 한 몫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다양한 경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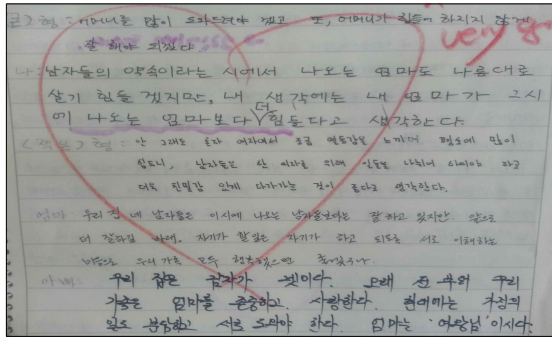
3~4차시 독서토론의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책을 읽고 나서 토론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작품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등 책을 읽고 나눈 경험을 떠올리며 독서토론에 대한 의욕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떤 책으로 독서 토론을 할 건가요?”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어떤 책을 선정해야 독서토론하기에 좋을까요?”라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야기 나눌 거리가 풍부해야겠지요.” “토론 주제를 만들기 쉬워야합니다.”, “논제는 찬성과 반대가 분명하게 나뉘어져야 합니다.”, <여우와 포도>는 독서토론하기에 좋은 책일까요? “이야기가 짧고 쉽습니다”, “논제를 만들기에 좋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뉘기에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우와 포도>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야기에 대한 질문거리를 말로 짚과 나눈 다음 여우의 행동에 대하여 두 친구의 생각을 모둠친구들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여우에 대한 두 친구의 생각을 비교하여 토론 주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정리하였습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희 : 여우는 포도를 따기 위해 더 노력해야했어.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여 딸 수 없었던 것인데, 포도가 시어서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잖아. 여우는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고 포기한 여우가 잘못이야. - 철수 : 여우는 현명해. 여우는 이미 포도를 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어. 되지 않을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은 오히려 낭비야. 쥐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여우처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른 기회를 잡아야 해 |
|---|

내용 파악 후 독서토론의 방법을 익히고 토론의 주제인 논제를 모둠별로 1개씩 제시하고 학급 베스트 논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논제에 대해 생각이 같은 학생들끼리 모여 자신의 의견을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독서토론의 방법을 연습한 다음 마지막 9~10차시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정하여 읽고 독서토론을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반이 함께 같은 책을 읽고 독서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책이 좋을까요?”라고 질문하니 “<우리는 한편이야>처럼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을 읽었으면 합니다.” “좋아요. 도서관이나 집에서 독



걸 느낄 수 있었고 아빠 얘기도 들어보니 아빠도 힘드신거 같다. (김○○)

♥ 선생님께서 내주신 일기 '가족과 시 함께 읽고 다짐 써오기'를 하면서 온가족이 대화를 나누고 반성도 하였다. 엄마가 무척 기뻐하셨다.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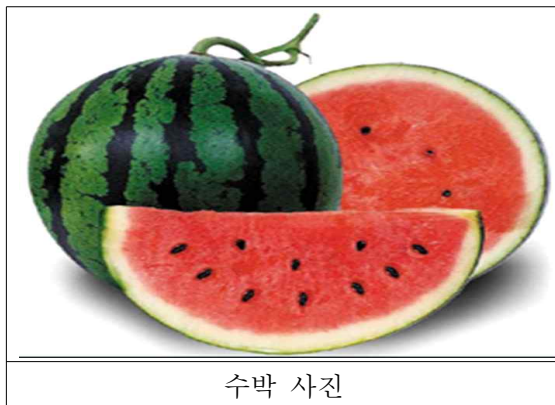
♥ 이제부터 선생님이 주말효도일기를 잘 실천해서 엄마를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최○○)

02. 또 다른 생각을 찾는 방법

3학년 2학기 1단원 <재미가 솔솔>에서는 재미있는 생각이나 표현을 떠올려 시를 쓰는 방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글을 읽고 재미있는 생각이나 표현을 찾는 활동은 시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즉 재미있는 생각이나 표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 전체의 재미와 의미를 높일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재미있는 생각이나 표현을 찾는 활동에 그쳐서는 안 되며 또 다른 생각을 찾아서 시를 쓰도록 연결되어야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재미있는 생각이나 표현을 떠올려 시를 쓰는 방법을 “빗 사 흥 위”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 빗 -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한다.
2. 사 -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다.
3. 흥 -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4. 위 - 대상이나 장면을 글자의 위치를 달리하여 표현한다.

특히 대상의 공통점을 찾아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법과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은 시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 네가지 특징을 질문과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새로운 생각으로 확장해 갔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박 사진

<수박씨>시를 학습하기 전 잘 익은 수박 사진을 제시하고 질문합니다.

교사 : 잘 익은 수박을 보니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 여름이요.
- 맛있게 먹었던 생각이 나서 지금도 먹고 싶어요.
- 시장이요.
- 시원하고 달아요.
- 씨없는 수박이 좋아요. 수박씨는 싫어요.

교사 : 오늘 배울 <수박씨>라는 시에서 시인은 수박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시를 같이 읽어 봅시다.

<수박씨>라는 시를 배우기 전 수박 사진을 제시하고 질문을 통해 수박하면 떠오르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박씨>를 함께 읽었습니다.

교사 : 무엇을 보고 시를 쓰게 되었나요?

- 하품하는 동생이요

교사 : 하품하는 동생의 입안을 보고 무엇을 떠올리게 되었나요?

- 수박이요.

교사 : 왜 하품하는 동생의 입안을 보고 수박을 떠올리게 된 걸까요?

(수박 사진과 교과서의 그림을 번갈아 가면 본다.)

- 입안과 잘 익은 수박 속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색깔이 빨갛습니다.
- 둘 다 둥글니다.

교사 : 자, 짹끼리 서로 입을 벌려 입안을 관찰해 볼까요? 충치가 보이기도 하나요? 시에서 충치는 무엇에 빗대어 표현했지요?

- 까맣게 익은 수박씨입니다. 충치도 수박씨도 둘 다 까맣기 때문입니다.
- 둘 다 조그맣습니다. 등

교사의 질문을 통해 어떤 것을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할 때에는 두 대상 사이에 닮은 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에게 <달달 무슨 달>노래도 함께 불러 보았습니다. “달을 왜 쟁반에다 빗대어 표현했나요?”, “둥그니까요. 보름달이라서요.” 요기까지는 공식처럼 참 쉽습니다.

이제 새로운 생각을 열어 확장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본 것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할 차례입니다. 먼저 짹끼리 교실 안을 다니면서 본 것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두 대상 사이에 닮은 점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것들을 보았나요?”, “그 것을 보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둘 사이는 어떤 닮은 점이 있나요?” 교사의 질문과 학생들의 대답, 그 대답에 대한 또 다른 질문, 학생들 간의 질문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뻗어갑니다. 그 때 한 학생이 “지진은 춤이에요”라고 말하였고 학생들은 “와아”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둘 다 흔들리는 공통점이 있다는 기발한 생각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진을 춤에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 새롭고 신기했는지 다른 학생들도 지진으로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싶다고 하여 짹끼리 이야기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지진은 지우개를 지울 때 흔들리는 책상 같아요.”, “지진 소리는 시끄러운 공사장소리 같아요.”, “지진 날 때 내 마음은 길을 잃었을 때처럼 무서

워요.”, “지진은 천둥번개”, “지진은 공포영화” 등 얼마 전에 있었던 경주 지진으로 인한 생생한 경험이 있기에 지진을 빗댄 기발한 표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진의 경험을 길 잃었을 때의 자신의 경험으로 연결 지은 아이는 그 때의 무서움이 다시 떠올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펼치면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의 시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경험이 만들어 낸 생각은 ‘구름은 솜사탕, 양떼 같은 흰 구름’처럼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낱말과는 근본적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확장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낱말 하나만 잘 잡으면 또 다른 생각으로 뻗어가는 힘이 크므로 쥐어 짜내지 않아도 시가 술술 써지는 것입니다. 교사는 질문을 통해 그런 낱말을 찾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생각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공책에 지진하면 떠오르는 자신의 경험, 생각,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등을 마인드맵으로 펼쳐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가진 다른 사물을 떠올려 적도록 합니다. 이것을 연결하여 쓰면 바로 빗대어 표현한 시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인 의인법을 학생들과 질문을 통해 학습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배운 <발가락>시에서는 어떤 표현들이 특히 재미있었나요?”, “발가락들이 사투리로 말하는 장면이 실감나고 재미있었어요.”, “발가락들이 사람처럼 논다고 한 거요.”, “발가락들이 서로 구경하겠다고 밀치기하는 장면이요.”, “발가락들이 밀어내다가 토라지는 부분이요.”, “발가락을 얼굴이라고 하여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부분이 재미있어요.”

이처럼 시에는 우리 주변의 사물이나 식물, 동물들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여 우리에게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사물에게 말을 걸어 봅시다. 교실을 한번 둘러보고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이야기 해 줄래요?”

아이들의 대답은 다양했습니다. 쓰레기통은 나 좀 씻어줄래, 줄단풍은 나 목말라, 물 좀 줘, 지우개는 낙서 좀 그만하고 살살 좀 지워주라 등 사물들이 자신에게 하는 말들을 창의적으로 생각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발상이 시에 그대로 담기면 사물이 말을 건네는 재미있는 시가 되겠지요. 시를 쓸 때에는 사물들이 나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어떤 기분일지 또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의 사용은 상투적인 생각보다는 참신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도록 질문합니다. “매미는 맴맴, 시냇물은 졸졸 어떤가요? 재미있나요?” 실감나는 표현을 위해 개그콘서트의 <리얼 사운드>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소리이지만 귀 기울여 깊이 자세히 들어보면 보다 실감나는 다른 소리로 표현되고 재미있어진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옥수수가 터지는 장면을 글자의 위치를 달리하여 표현한 시를 봅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옥수수가 팡 터지는 모습을 팡팡, 팡팡팡, 팡팡팡팡으로 글자 수와 위치를 규칙적으로 적었습니다.”

“어떤 장면을 떠올려 글자의 위치를 달리하여 표현해 볼까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장면이요.”

“별모양으로 별을, 달 모양으로 달을 그려 보면 좋겠어요.”

“땡땡 종소리요.”

오늘 학습한 4가지 방법 중 한 두가지 정도 시를 쓸 때 활용한다면 보다 재미있고 참신한 시가 될 것입니다.

03. 노트 정리하기

질문 수업이 시작되면 질문 공책도 함께 준비합니다. 교과서를 읽고 궁금한 점, 알고 싶은 점을 10개씩 공책에 적도록 하였습니다. 학년성과 학급 사정, 학생 특성을 감안하여 모든 교과마다 질문 공책을 만드는 것이 힘들다 느껴지면 한편의 노트로 만들어 사용해도 됩니다.

다음은 학기 초 4학년 학생들과 모둠별로 나눈 수업 시간 다다익선(多多益善)할 것들을 찾아간 대화의 예입니다. 어린 학생들이지만 재미있고 즐거운 수업 시간을 상상하면서 어떤 것들이 많아지면 더 좋은 수업이 될까를 모둠 협력 대화로 찾아가며 많은 낱말들을 찾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버블맵이라는 썬킹맵 기법을 사용하여 구조화시킨 다음 전체 공유해 보았습니다. 6개 모둠에서 공통으로 경청과 질문, 웃음과 칭찬, 친구 가르치기 등의 낱말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묻고 진지하게 답을 찾아가고 왜, 어떻게? 라는 질문을 사용하며 수업 시간 많았으면 하는 것들을 찾았습니다. 1년 동안 우리도 이런 것을 많이 하는 수업을 해야겠다는 실천의지도 자연스럽게 다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번의 잔소리보다 친구들과 함께 자기들이 힘을 모아 찾은 것들이기에 소중히 생각하나 봅니다.

교사: 오늘 함께 “수업 속에서 다다익선(多多益善)하면 좋은 것들을 모둠 친구들과 함께 찾아볼까요?

(모둠별 대화 내용)

학생1: 친구의 말을 잘 들어야겠지 경청이 많을수록 수업이 좋아질거야.

학생2: 친구를 잘 배려하면 좋을 거 같아.

학생1: 수업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배려는 무엇이 있을까?

학생2: 친구가 모를 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같이 문제도 풀어보면 친구를 배려하는 거겠지.

학생3: 맞아, 나도 모르는 것을 친구가 설명해 주니까 선생님보다 더 쉬웠던 적이 있어.

학생1: 수업시간에 많을수록 좋은 것엔 또 무엇이 있을까?

학생4: 웃음과 칭찬이 많으면 즐거운 수업이 될 수 있을거야. 그리고 또 모둠 학습이 많으면 좋겠어

학생2: 모둠 친구들끼리 서로 돕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배우면 좋겠지. 그러려면 질문을 많이 해야지.

학생4: 경청, 배려, 친구 가르쳐주기, 웃음, 칭찬, 돕기, 질문, 이야기 와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교사: 지금껏 모둠에서 나눈 이야기를 버블맵으로 구조화시켜 모둠 칠판에 적은다음 칠판에 게시하고 공유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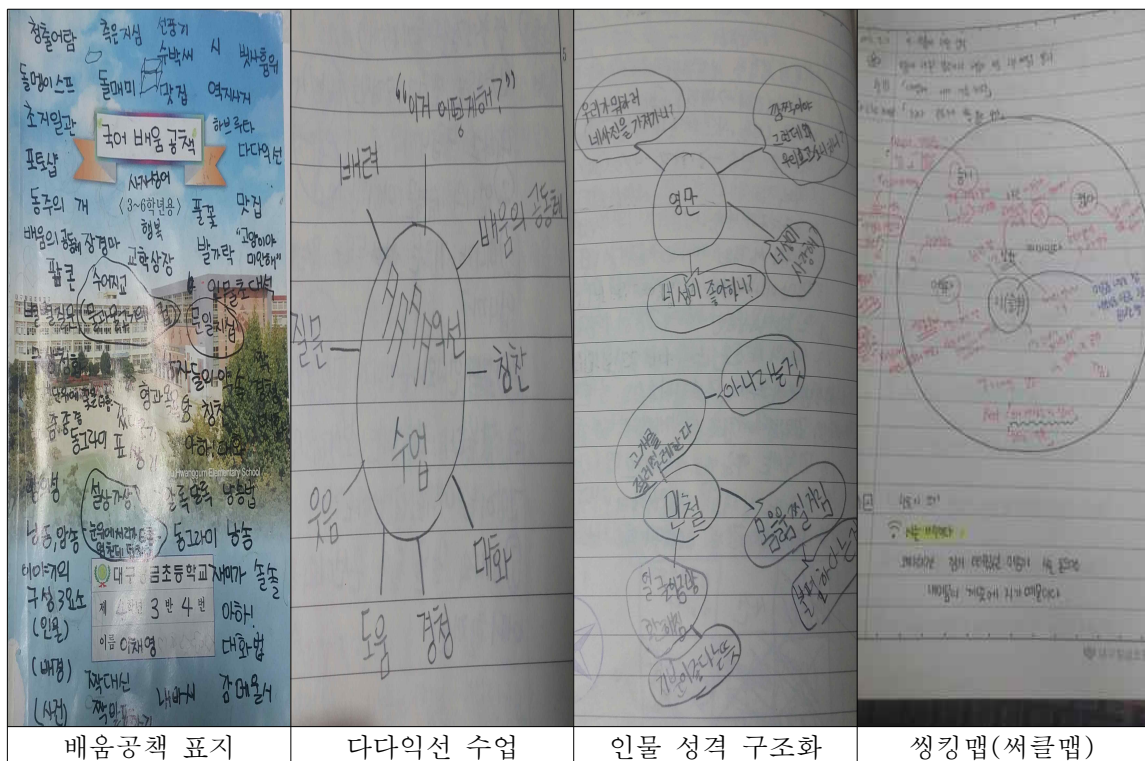
공유를 하는 도중에 학생들도 서로 질문 합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질문이 없는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선생님이 설명하고 우리들은 듣고 적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또 다른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듣기 싫어지면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이쯤해서 <말문을 터라> 조용한 공부방과 말하는 공부방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청 소감을 이야기하고 나서 올 한해 말하는 공부방으로 수업을 하는 것에 전원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모두 공부를 잘 하고 싶은 맘은 같은가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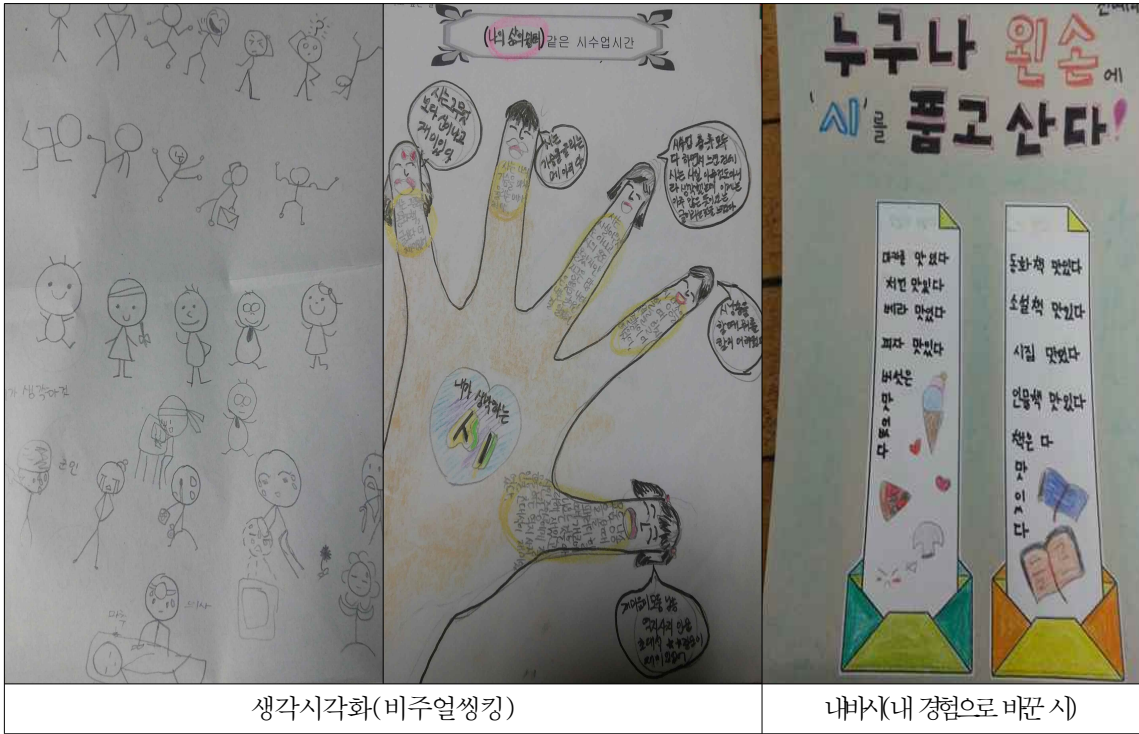
다다익선 수업을 하고나서 부터 국어 수업시간에 본격적으로 질문 만들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반 질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별별)질문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별표처럼 중요한 내용 질문, 별스럽고 시시콜콜한 기분 질문입니다.”

<고양이야 미안해>이야기를 밑줄 긋고 읽기와 배역 읽기 2번을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배움공책에 ☆★(별별)질문을 10개를 내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일제히 “10개나요? 너무 많아요?”원성이 높았지만,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다다익선, 질문이 살아 숨 쉬는 교실을 위해 한번 해 보자고, 자꾸 하다보면 나중에는 어렵지 않게 될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답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교과서의 질문을 그대로 적어 보태어도 됩니다.”, “짧게 적어도 됩니다.”, “육하원칙을 떠올려보세요.”하면서 순회 지도를 하였습니다. 질문을 만드는데 속도 차이가 제법 많이 나서 질문 10개를 다 만든 학생들은 자유 짝 만남으로 질문을 서로 나누며 답도 이야기해 보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인 셈이지요. 늘 우수한 친구들은 기다려주고 가르쳐주며 때로는 싫을 때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질문 만들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저와 함께 질

문을 만들어 가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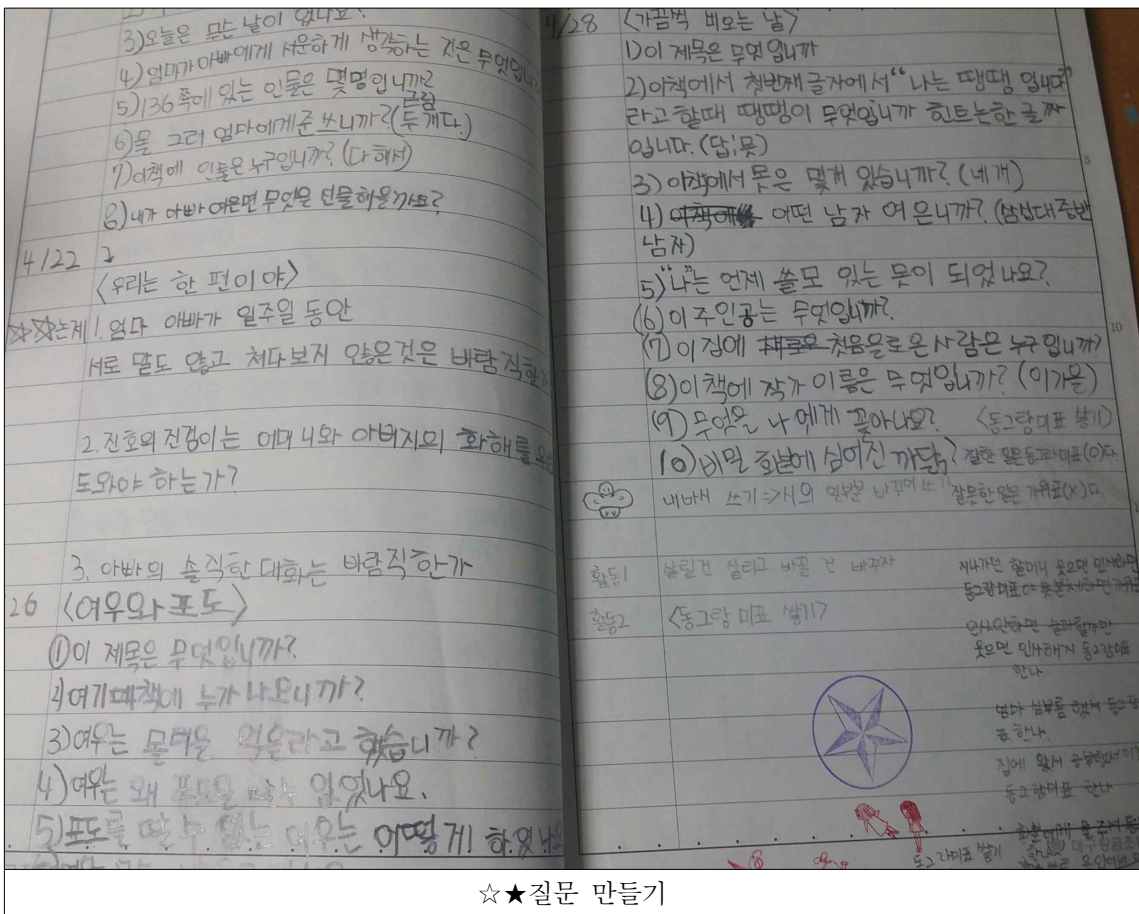
국어 배움공책 한권을 학기 초에 마련하여 표지에는 수업 시간에 배운 인문사자성어, 속담, 시나 동화 제목을 네임펜으로 적어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 가도록 하였습니다. 약자, 기호, 씹킹맵(써클맵, 버블맵, 더블 버블맵 등 3-4가지 활용), 생각시각화(비주얼 씹킹을 활용한 약화그리기)을 적절히 사용하고 여백의 미를 살린 공책 쓰기를 약속하였습니다. 시나 이야기에서 질문을 만들고 배운 내용을 정리할 때 구조화하거나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할 때 마다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알록달록 색깔펜으로 예쁘게 꾸미면서 공책 정리에 관심을 갖고 즐겁게 하는 학생들이 하나 둘 늘어났습니다. “답은 몰라도 됩니다. 물론 답을 적지 않습니다.”라는 교사의 말에 안심하며 질문을 써내려 가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수업 시간에 초롱초롱 빛나는 학생들의 눈을 보면서 질문이 교실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주는 원동력이 됨을 실감합니다. 질문이 쌓여갈수록 우리 아이들의 배움이 더욱 커지겠지요. 노트 정리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마시고 학생들의 질문과 배움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구조화시켜 정리 메모하도록 학생들에게 맡기고 창의적인 발상은 공개적으로 칭찬·격려하시면 자신만의 색깔을 담아 적어나갈 것입니다. 처음은 다소 미약한 부분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업그레이드 되어갈 학생들의 능력을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시각화(비주얼씽킹)

내바사(내 경험으로 바꾼 시)



★질문 만들기

--